

부록

드골의 핵심 어록 50선
드골 연보
찾아보기(주석편)
참고문헌

드골의 핵심 어록 50선

- 나는 조국 프랑스가 거대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될 때 인생의 보람은 그 시련 앞에서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치는데 있으며 내 자신이 그러한 기회를 반드시 가지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. (P.17)
- 지휘관의 참된 학교는 상식에 있다. 인간정신의 유산에 취미를 갖지 않았거나 접해 보지 못하고 성공한 지휘관은 없었다. (P.26)
- 전쟁에는 몇몇 기본적인 원칙을 제외하고, 보편적인 체계란 없다. 단지 상황들이 있을 뿐이다. 따라서 군의 지도자는 상황(狀況), 여론(輿論), 주권자(主權者)와 같은 개념을 참작할 수 있어야 하고, 사태의 힘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. (P.28)
- 무용(武勇), 무덕(武德), 전쟁기술은 인류유산의 불가분의 일부이며, 역사의 모든 단계에 있어 그 모습을 비춘 거울이다. 이것이 없이는 어떤 국가도 홀로 설 수 없다. (P.29)
- 정의(正義)는 자신의 주변에 칼을 보유하지 않으면 쉽사리 조롱당한다. 국제법은 군사력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. 사실상 군인정신, 군사전략은 인류재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. (P.34)

- 인간의 정신이 현실과 접촉하는 수단은 직관(直觀)이다. 직관은 본능과 지성의 결합이다. (P.36)
- 위대한 사람없이는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. 또한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. 그리고 누구나 위대해지고자 노력만 하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. (P.40)
- 나는 군인이라는 직업이 지성과 감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그리고 매우 자유로운, 즉 정신적인 자유와 실질적인 유연성이 부여되는 사실에 강한 매력을 느꼈다. (P.51)
- 전투는 그것이 대단히 참담한 것일지라도 군인에게서 군인다운 본질을 인출(引出)한다. (P.55)
- 프랑스는 전투에서 패배했으나, 전쟁에서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.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불꽃은 꺼져서는 안되며, 또한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. (P.64)
- 쉬지 않고 유동하는 세계속에서 모든 교의(敎義), 모든 유파(流波)는 제각기 하나의 시기(時期)를 갖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. 공산주의는 지나가 버릴 것이다. 그러나 프랑스가 지나가는 일은 없다. (P.80)
- 허리를 굽히기엔 나는 너무 유약했다. (P.90)

- 외세가 고른 권력의 주체에 의한 프랑스 해방은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 아니다. (P.91)
- 역사는 그의 중대한 순간에 있어 스스로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는 자만을 인정한다. (P.92)
-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배반자나 범죄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. (P.95)
-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논리와 감정은 힘의 현실에 비해 커다란 무게를 갖지 못한다.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취할 수 있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. (P.105)
- 우리는 주권, 제국 그리고 칼을 가지고 조국에 돌아왔다. (P.106)
- 일단 취하는 입장이 분명해진 이상 정권이 우물쭈물하는 것만큼 손해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. (P.112)
- 국가 지도자는 주권의 상징이다. (P.116)
- 전쟁은 내면(內面)에서 타오르게 하는 정념(情念)일 뿐 아니라 전쟁이 호소하는 구실은 반드시 인간의 정신적 운명에 관계되는 입장의 충돌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. 알렉산더대왕의 승리는 하나의 문명의 승리였다. (P.128)

- 처칠의 패배는 위대한 인물에 가해진 불명예로 비칠지 모른다. 그러나 이것은 인간사의 흐름일 뿐이다. 위대한 일을 위한 처칠의 개성이 범용(凡庸)의 시대에는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. (P.132)
- 좌, 우 어느쪽도 아니고 그 이상이다. 정치나 전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, 경제에 있어서도 절대적 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. 다만 그때 그때의 상황이 있을 뿐이다. (P.142)
- 오랜 세월 프랑스 정당은 프랑스에 봉사하기보다는 프랑스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습관에 젖어 있었다. (P.151)
- 나는 프랑스는 사랑하나, 프랑스인은 싫어한다. (P.156)
- 현재의 체제는 행동에 이르지 못하는 관념들과 헛된 환상들만 낳을 뿐이다. (P.157)
- 나는 일생을 통해서 프랑스에 어떠한 이념을 제시하여 왔다. 요컨대 나의 생각은 프랑스는 위대성 없이 프랑스일 수 없다. (P.169)
- 프랑스는 큰 국가적 야망없이 존재할 수 없다. (P.170)
- 나는 여러분의 뜻을 이해했습니다! 나는 알고 있습니다. 바로 그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 (P.178)

- 나는 사방에서 평범하기를 바라는 이 시대에 위대한 것을 위해 행동을 해야 했다. (P.182)
- 국가가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신과 국가 원수의 정신이 수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. (P.183)
- 위신을 세우지 않고서는 권위가 설 수 없고 거리감을 두지 않고서는 위신이 설 수 없다. (P.186)
- 제국(帝國)이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가?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역사에 불과하다. (P.189)
- 나는 프랑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바입니다. (P.204)
- 프랑스의 이 사건은 프랑스가 세계에 등장할 때 시도했던 모든 위대한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의 하나이다. (P.207)
-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30년간 전쟁에서 지리멸렬이 된 유럽에 평화와 세력 균형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「슬라브족」, 「게르만족」, 「골족」 및 「라틴족」 각 민족이 협력하는 길 밖에 없다. (P.211)
- 유럽이 뭉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프랑스와 독일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두말 할 필요가 없다. (P.213)

- 프랑스가 세계적인 것이 아닌 순간 프랑스는 더 이상 프랑스가 아니며, 어떠한 유럽문제도 프랑스의 참가없이 해결되지 않는다. (P.215)
- 프랑스는 다음 수년 안으로 자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군사력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, 우리가 제조하든지 또는 구입하든지 핵무기는 전적으로 프랑스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. (P.217)
- 전쟁을 정지시키는 유일한 길은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. (P.220)
- 당신들은 프랑스를 열 번 파괴할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, 우리에게는 한번 파괴할 핵무기만 있으면 된다. (P.222)
- 어떠한 동맹도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, 또한 동맹속에서는 국가 독립이란 있을 수 없다. (P.224)
-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프랑스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는 여전히 독립국가이다. (P.227)
- 프랑스는 프랑스다. 항상 세계를 놀라게 한 신비스러운 원동력이 프랑스 속에 있다. (P.233)
- 그러나 아무리 내가 영국에 높은 경의를 표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영국을 미인이라고 말한 기억은 없다. (P.238)

- 프랑스는 일시에 모든 것이다. 프랑스는 모든 프랑스인들을 포괄한다. 프랑스는 좌익도 우익도 아니다. 자연스럽게 프랑스인들 속에서 개혁을 하고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영원한 경향이 있을 뿐이다. (P.240)
- 자신의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져야하는 지도자가 즉흥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신념때문이다. (P.247)
- 그렇다. 그러나 내가 죽는데 실패하여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. (P.248)
- 개혁은 위(OUI), 혼란은 농(NON). (P.249)
- 한 정치가가 단호하고도 집요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,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, 외국과의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만약 자기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는 실패할 것이다. (P.253)
- 국장(國葬)은 필요치 않다. 묘비에도 「샤를 드골 1890~」이라고만 적는다.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떠한 표창과 훈장도 거부할 것을 선언한다. (P.257)

드골 연보

시 기	프랑스 · 드골 동정	세계 동정
1890	,	
1909		
1912	,	
1914	1	1
1916	가	
1917		
1918		1
1919	, 가	
1920		
1921		
1922		
1924	「 (敵) 」	
1925		
1929		
1932	, 「 」	
1933		
1934	「 」	
1935		,
1936		,
1938	「 」	,
1939	507	, 가
1940. 1	, 8	,
5	4 ,	, ,

프랑스의 이름으로 나는 명령한다

시 기	프랑스 · 드골 동정	세계 동정
6	, 「 」	
7		
9	,	
1941. 6		,
12	,	
1942 11		,
1943. 6	, 「 」	
1944. 6	,	,
7	,	
8		
9	,	
12	,	
1945. 2	,	2 - , ,
4		
5		
11	,	
1946. 1		
3	4	, “ ”
1947	, (RPF)	
1949		(NATO)
1950		6 「 」 ,
1953. 2		
11	, RPF “ ”	
1954. 7	,	
11	,	
1955. 4		,
5		
7	,	

시 기	프랑스 · 드골 등장	세계 등장
1956		, 가 , ,
1958. 5		
6		
9	5 ,	
1958. 12	,	
1959. 1		
3		
9		,
12	, . . 3	
1959 ~ 60	, 12	
1960. 1		
2		
3	,	
5		U2 . . 4 .
11		
12		「, 」
1961. 1	가	
5	,	,
11		
1962. 3	「 」	
4		
8		
	,	

프랑스의 이름으로 나는 명령한다

시 기	프랑스 · 드골 동정	세계 동정
10		
1963. 1	-	
	, (EEC) 가	
8	,	. .
11		
1964. 1	,	
9	, 10	
10		
		,
1965. 1		
2	, “ ” ,	
4		(EC)
12	,	
1966. 7	, (NATO)	
8		
	, - “ ” 가	
10	, EC 가	
1968. 5	, ,	- ,
8	,	
11	, 가	
1969. 2		,
3		.
4	,	
1970. 10	「 」 1	
11		

찾아보기(주석편)

가	46	,	249	82	234		
ㄱ	68	35	214	145	181	58	
	34		199	56	46	97	165
ㄴ	160	225	250, 262				
ㄷ		203	77	44	221	가	
	50		49	185		195	
ㄹ			121		176	122	
	15		21	79	214	237	
	82		109	111	212		
ㅁ		46	39	38		157	
	118		71	,	143	256	
	48		237	175	169		
ㅂ		104	84	120	55	36	
		83		221	235	242	
	70	165		30		223	
		231	75		95	123	107
		172	62				
ㅅ		172	198	68		19	
		83	32		76	132	
	160	124	266	79		242	
	181						

214 26 55
 95 26 178 196
 △ 196 188 77 123 111
 207 18 237
 209 262 234 61 140
 105 195 EC227 EEC214

 239 63 40 204
 스 66 1 , 2 147 2 160 3 35 3
 191 3 216 4 137 5 181 219
 147 97 46 89 175

え 244

90 261 174 178 230
 ㄱ 40 31 263

E 226 89 , 135 238

 116 20 61 216 185 98
 ㅁ 193 23 66 190
 - 18

ㄷ 243 223

참고문헌

-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(이주흠, 뉴엠, 에이픽스사, 1999)
- 드골의 외교정책론(허만저, 집문당, 1997)
- 드골 평전(필리프라트 저, 윤미연 역, 바움, 2002)
- 인물로 읽는 세계사(드골)(수산 밴필드, 김기연 역, 1993)
- 세계 인물 대회고록 전집(드골)(방기환저, 신태양, 1964)
- 지도자와 역사의식(주섭일 저, 지식산업사, 1997)
- 프랑스의 대숙청(주섭일 저, 중심, 1999)
- 드골-프랑스의 영광(송건호 저, 탐구당, 1965)
- 세계의 대회고록 전집(심상필 저, 한림, 1979)
- 20세기 세계와 한국(양동주 편저, 크로니클, 1994)
- 도해 세계 전사(노병천 저, 한원, 1989)
- 명장명언(강창구, 병학사, 1978)

이 책을 통해 저 본 드골의 사상과 리더십
프랑스의 이름으로 나는 명령한다

/

/

/ 21

/

/

/ 2004 2 9

/ 2004 2 14

/ 6 501 6

21

/ 842-3105 7 FAX / 842-3108

E-mail : publish@military.co.kr

ISBN: 89-87647-26-9 03390

가: 8,000